

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

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연구위원
kangms@kiep.go.kr

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
iachoi@kiep.go.kr

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
중국팀 연구위원
morganmoon@kiep.go.kr

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선임연구원
misookp@kiep.go.kr

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전문연구원
khryou@kiep.go.kr

이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전문연구원

이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
아프리카중동·중남미팀 전문연구원
dawnlee@kiep.go.kr



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연구 결과
3. 정책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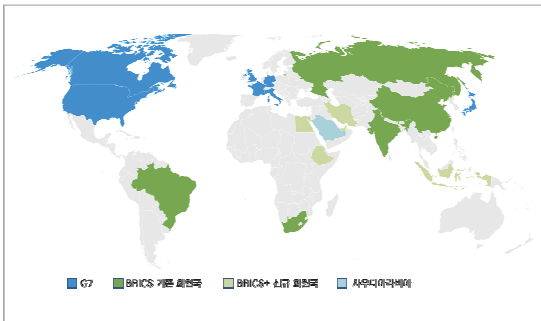
주요 내용

- ▶ 미·중 전략 경쟁, 러-우 전쟁 등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BRICS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RICS+는 연성 균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.
 - BRICS 확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G7에 대응하는 대안 질서 구축을, 인도·브라질·남아공은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음.
 - UAE(잠재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도 유사함)는 경제 다각화를, 이란은 제재 극복을, 이집트·에티오피아·인도네시아는 개발 금융 확보 및 외교 다변화를 목적으로 BRICS에 가입함.
- ▶ BRICS+는 원자재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·투자에 있어서도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해 G7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블록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함.
 - BRICS+는 곡물 생산의 44%, 원유 생산의 43%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광물 및 희귀금속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.
 - 제조업은 중국이 BRICS+ 수출의 약 84%를 차지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로 고착되었고, 자본재 및 핵심 투입재에 대한 G7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블록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움.
 - BRICS+는 NDB를 통한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, 자국 통화 결제 확대,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협력을 추진 중이나 회원국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선호 차이로 인해 금융 및 투자 협력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음.
- ▶ BRICS+는 완전한 경제 블록화 가능성은 낮으나, 분야별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△ 소다자 협력, △ 글로벌 의제 공동 대응, △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, 그리고 △ 협력국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 - BRICS+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넘어 한-인도-중동, 한-미-중동, 한·중·일+ 등 다양한 협력 플랫폼 고려
 - 기후변화, 빈곤 극복,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를 매개로 협력 채널 다변화
 - BRICS+ 국가와의 에너지, 곡물, 핵심광물 협력 확대와 양자 협력 강화 추진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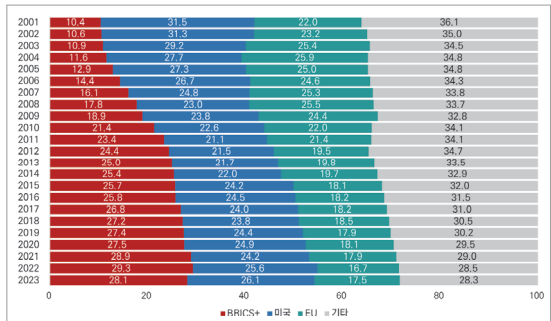
- [배경] 미·중의 전략 경쟁 심화, 코로나19, 러-우 전쟁 발발 등에 따라 자국 우선주의와 블록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BRICS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·핵심광물·제조업 공급망, 금융 및 투자 부문에서 BRICS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.
 - 2024년 UAE, 이집트, 이란, 에티오피아에 이어 2025년 인도네시아가 BRICS+에 가입하면서 BRICS는 서방 중심의 거버넌스에 맞서 신흥국의 이익을 지키는 연성 균형(Soft Balancing)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됨.
 - 2023년 기준 BRICS 1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48.7%를, GDP의 28.1%를, 수출액의 24.5%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임.
 - 이에 따라 BRICS 회원국은 원유 및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산업과 주요 핵심광물(희토류, 망간 등)에 대한 시장 장악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BRICS 내 제조업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어 신흥국 주도의 BRICS 확장이 한국 경제에 주는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됨.
 - 또한 SWIFT 시스템에 대응하는 결제 시스템 구축,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 확대, 그리고 현지 통화 결제 비중 확대 추진에 따른 탈달러화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.

그림 1. G7 및 BRICS+ 회원국



자료: 강문수 외(2025), p. 25.

그림 2. 주요 지역의 GDP 비중 추이 (단위: %)



자료: "GDP(current US\$)," World Bank Group Database(검색일: 2025. 5. 9.).

- [연구 목적] 본 연구는 2024년부터 이뤄진 BRICS 확장이 신흥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경제 블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BRICS+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- 본 연구는 ① BRICS+가 확장되는 이유와 BRICS+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? ② BRICS+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BRICS+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가? ③ BRICS+의 발전 방향과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?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.

2. 연구 결과

1) BRICS 확장 배경

① 기존 회원국의 동기

- [중국, 러시아] 중국과 러시아는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(SCO) 등을 주도하면서 G7에 대응한 대안적 질서 구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.
 -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BRICS를 연계하여 글로벌 사우스(아세안, 남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) 내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음.
 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이뤄진 유럽의 경제 제재 극복,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,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 결제 시스템 구축, 그리고 다극 전략 실현을 위해 BRICS 회원국 확대 주도
 - 러시아는 BRICS+ 곡물 거래소 신설 주도, 대중국 및 대인도 원유·천연가스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수출 다변화 시도
- [인도, 브라질, 남아공] 인도, 브라질, 남아공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BRICS를 활용하는 동시에 BRICS 확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다변화를 추구
 -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내 리더십 확보, 전략적 자율성 유지, 그리고 경제 실익 추구, 브라질은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플랫폼으로 BRICS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BRICS의 확장에는 신중한 입장
 -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반영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 BRICS를 활용해 왔으며 BRICS+ 확장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확대, 경제 파트너 다변화,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

표 1. BRICS+ 관련 기존 회원국 입장

국가	회원국 확장	서방에 대한 관점	미국에 대한 관점	중국에 대한 관점	탈달러화 및 공동 통화	확장 목적
러시아	적극 주도 (우군 확보)	반서방 연대 강화	적대적 (제재 회피 및 미국 주도 질서 도전)	경쟁 속 전략 협력	적극 추진 (SWIFT 대안 구축, 공동 통화 구상 주도)	① 제재 회피 ② 대안적 수출망 확대 ③ 기술·AI 주도권 확보
중국	적극 주도 (우군 확보)	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구조적 경쟁 추진	경쟁적 (대안적 체제 확립 및 기술 패권 경쟁)	-	적극 추진 (위안화의 국제화 주도, 공동 통화 직접 언급 회피)	① 신 국제 질서 형성 ② 위안화의 국제화 ③ 기술패권 선점
인도	신중 (회원국 적격성과 정치적 조화 강조, 중국 주도 확대 경계)	중립 (반서방 이미지 경계, 실용적 협력 추구)	전략적 자율성 추구	견제 (양국 갈등 및 글로벌 사우스 내 리더십 경쟁)	신중 (루피 결제 확대, 위안화 중심 구상 경계)	① 남-남 협력 ② 개발 협력(인프라)
브라질	신중 (BRICS의 위상 약화 우려)	중립 (반서방 이미지 경계, 포용적 다자주의 강조)	우호적	중립	신중 (통화 다양화 찬성, 공동 통화 회의적)	① 남-남 협력 ② 개발 협력(기후변화, 보건)
남아공	지지 (아프리카 대표성 제고)	중립 (서방과의 관계 유지)	우호적	중립	긍정적 (아프리카 연계 통화 시스템과 연계 기대)	① 아프리카 대표성 강화 ② 개발 협력

자료: 강문수 외(2025), p. 60.

② 신규 회원국의 가입 동기

- [UAE] UAE와 사우디아라비아¹⁾는 경제 및 외교 다변화,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BRICS+ 가입을 추진했으며 특히 최우선 과제인 안보와 기술 협력 기회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BRICS에 가입
- [이란] 이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서방 제재 극복, 중·러와의 외교안보·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고립 탈피를 위해 BRICS+에 가입했으며 BRICS+를 서방의 제재에 맞설 수 있는 블록으로 인식
- [이집트·에티오피아] 이들 아프리카 2개국은 무역 및 개발금융 기회 창출, 아프리카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BRICS+를 전략적으로 활용
 -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투자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정부 부채 감소를 위해 신개발은행(NDB)에 대한 접근성 제고,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 파트너 다변화를 위해 BRICS+에 가입

1)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함께 BRICS 가입을 계획했으나, 현재까지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됨.

- [인도네시아] 인도네시아는 반등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리더로서 위상 회복, 외교 다변화,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외교적 목적을 위해 BRICS+에 가입했으며 이와 동시에 NDB를 통한 인프라 구축, 에너지 전환,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중장기 발전 재원의 확보를 추진

③ BRICS+의 지향점

- 10개 회원국 체제의 BRICS+는 △ 국제기구 개혁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, △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강화 및 공동 현안 협력, △ 글로벌 어젠다(AI, 기후변화 대응, SDGs 등)에 새로운 규범 조성 등을 추진
- 경제적으로는 △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구축, △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자립적 성장 기반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, △ 국제금융 시스템 개혁과 대안적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 강화 등을 지향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기존 다자기구에 대응하여 NDB가 설립되었으며 곡물·에너지·핵심광물·제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있음.

2) BRICS의 경제적 입지

① 원자재

- BRICS+는 곡물, 에너지,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G7과 BRICS+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어 자원 블록화가 진행되는 상황임.
 - [곡물] BRICS+ 10개국은 세계 곡물 생산의 44%, 수출의 25%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밀, 옥수수, 쌀을 중심으로 러시아, 브라질, 인도 등의 공급 비중이 높아 글로벌 식량안보 협력에 있어 BRICS+의 입지가 강함.
 -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BRICS 정상회의에서 농산물 무역, 농업 기술 혁신, 소규모 농가 지원 등에 걸친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함.
 - [에너지] UAE, 이란 등의 가입으로 BRICS 내 산유국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은 전 세계 생산량의 43.1%와 32.4%까지 증가했으며 중국·인도를 중심으로 BRICS+ 역내 국가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미국이 인도-러시아 간 에너지 교역에 따른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으며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제재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미·EU 대 중·러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BRICS+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[핵심광물] BRICS+는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BRICS+ 지질 플랫폼 구축에 합의하는 등 핵심광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핵심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음.
 - BRICS+ 회원국의 자원 공급 비중은 희토류 72%, 망간 75%, 흑연 95% 등으로 주로 중국이 원광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
- [평가] BRICS+의 원자재 시장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곡물보다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BRICS+ 역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재 부문에서 BRICS+가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 - 분쟁, 기후변화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국내 공급 부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BRICS+ 회원국 입장에서는 곡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BRICS+ 비회원국과도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.
 - 에너지 분야의 경우, 중국-GCC, 러시아-이란, 인도-사우디 등 양자 간 공급 및 비축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브라질이 OPEC+에 가입하면서 BRICS+ 회원국이 OPEC+를 주도하는 상황임.
 -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·EU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와 함께 BRICS+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은 지배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BRICS+ 핵심광물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.

② 제조업

- BRICS는 10대 제조업²⁾ 수출 시장의 약 25%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파트너십 전략과 BRICS 산업장관회의 운영에 이어 2020년 신산업혁명 파트너십(PartNIR)까지 발족하는 등 BRICS 회원국 간 제조업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.
 - BRICS+는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40%대 수준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전기·전자, 기계,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전환이 이뤄지는 추세임.
- 제조업 시장은 중국이 BRICS+ 제조업 수출 시장의 83.8%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석권하고 있으며, 특히 핵심 부품, 자본재는 중국, 원자재는 기타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분업 구조로 고착됨.
 - BRICS+는 EU, USMCA, ASEAN 등 기타 경제 블록에 비해 회원국 간 교역 비중이 낮으나 중국 편중도가 매우 높으며 인도(5.5%), UAE(3.8%) 등과의 격차가 매우 큼.

2) 전기·전자기기(HS 85), 기계류(HS 84), 일반차량(HS 87), 의약품(HS 30), 플라스틱과 그 제품(HS 39), 광학·정밀기기(HS 90), 유기화합물(HS 29), 철강제품(HS 73),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(HS 38), 가구류·조명 기구(HS 94).

-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BRICS+ 국가들과의 중간재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회원국 간 온전한 공급망 구축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음.

● BRICS+ 역내 제조업 생산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RICS+ 국가 간 공급망 형성보다는 중국이 제조업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, 따라서 중국 이외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도 제한적일 수 있음.

- BRICS+는 고숙련 및 저숙련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자본재 및 중간재 등 핵심 생산 설비와 투입재는 여전히 G7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.
 - 중국 주도로 전기·전자기기 분야에서는 휴대전화,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차량 분야에서는 여전히 G7 국가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음.
- BRICS+는 경제블록으로서의 제조업 시장 내 공급망을 형성하기보다는 중국이 역내 제조업 시장을 주도하는 체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이 없이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BRICS+ 제조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.
 - 제조업 내 BRICS+ 역내무역 비중은 약 24%에 불과한데, 이는 EU(56.6%), USMCA(51.9%)보다 현저히 낮고 아세안(16.5%)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여서 제조업 블록화의 가능성은 낮음.
 - BRICS+ 회원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다수 품목에서 50%를 초과하고 있어 전략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③ 금융·투자

● [금융 협력] BRICS+는 미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신개발은행(NDB) 및 비상대응준비기구(CRA) 설립을 통한 독자적 금융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및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

- NDB는 회원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의 인프라 및 그린 프로젝트에 투자 단행
- BRICS+는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브릭스 페이, 브릭스 브릿지, 브릭스 Unit 등의 수단을 도입했으나, 미국이 연방 스테이블 코인법(GENIUS Act)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통화 지배력 강화 전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.
 - 다만 BRICS+ 내 디지털 금융 확대를 탈달러화로 인식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이란 두 나라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는 금융 시장 안정성 및 자국 화폐권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.
 - 브릭스 브릿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며 브릭스 Unit은 SDR과 유사한 개념으로 회원국 통화 바스켓 기반의 공동 화폐단위 도입 구상으로 볼 수 있음.
- BRICS+ 국가 간 금융 협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기술·정책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수준차가 크고 NDB의 회원국별 균등 의결권으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BRICS+ 회원국 간 금융 협력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.

- [투자 협력] BRICS+는 정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경제 파트너십 전략, 비즈니스 위원회 내 작업반을 통한 상호 간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BRICS+ 역내 투자보다는 투자 안정성이 높고 기술 확보가 용이한 G7 대상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 - BRICS+ 내 투자는 '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'에서 강조된 무역 및 투자 원활화, 기후변화 대응, 디지털 경제, 혁신 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PartNIR을 통해 신산업(AI, 스마트 제조 등) 분야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가 연계됨.
 - 다만 BRICS+ 국가의 정책 금융 투자 대상은 BRICS+보다는 기술 및 안정적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G7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BRICS+ 국가 간 투자 협력에 대한 한계점이 뚜렷함.
 - 정책금융은 중국, UAE,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BRICS+ 대상 투자는 인프라, 부동산 개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, 대조적으로 대G7 투자는 금융, IT, 바이오, 첨단제조 등의 비중이 높음.

3. 정책 제언

- [블록화 가능성] BRICS+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은 낮으며, 다만 분야별로 협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됨.
 - BRICS+ 국가의 산업 다각화 및 기술 혁신 수요, 원자재 공급망 주권, 대안적 금융 질서 확립 등은 BRICS+ 주도의 글로벌 사우스 지역 블록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중국 주도의 불균형 경제협력 구조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결여로 인해 BRICS+ 비회원국과의 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.
 - 블록화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은 BRICS+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인 러시와 이란을 중심으로는 반서방 기조 형성, 인도, 브라질, UAE 등은 실리 추구,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BRICS+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임.
 - 전통산업 및 공급망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의제(기후변화, 에너지 안보, 지속가능한 발전 등) 선점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임.
- [시사점 ①: 소다자협력 확대] 한국은 BRICS+와의 협력보다는 소다자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G7+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BRICS+ 국가와의 다자 협력 추진 필요
 - 인태 지역, 중동 국가와의 소다자 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 협력 및 공급망 구축, 그린 산업,

해양 협력 등의 분야에서 한-인도-중동, 한-미-중동 협력 논의

- 한국과 인도는 기술력 및 기술 인력을 상호 보완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UAE,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국가는 투자 및 테스트베드 제공
-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ASEAN+3 플랫폼을 차용하여 BRICS+ 개별 회원국과의 한·중·일+ 협력 모델 구축

● [시사점 ②: 글로벌 어젠다 공동 대응] 기후변화, 빈곤 극복,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사우스가 관심을 갖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-BRICS+ 국가 간 협력 다변화

- 브라질 BRICS+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회의에서 포용적 농촌개발, 빈곤 극복,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개발도상국 발전과 글로벌 위기 대응에 관한 의제가 공통적으로 논의됨.
- 브라질, 남아공, 에티오피아, 이집트,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BRICS+ 회원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가 당면한 위기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외연 확장

● [시사점 ③: 협력 다변화] BRICS+ 국가가 에너지, 곡물, 핵심광물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을 고려한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

-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이미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브라질·인도네시아·러시아 등과의 농업 협력 확대, 핵심광물 공급국과의 핵심광물 협력 다변화가 요구됨.
- 기존에 협력이 활발한 국가 이외에 이란, 이집트, 에티오피아 등 BRICS+ 신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다변화가 요구되며 이와 동시에 한국과의 기존 양자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BRICS+ 회원국과의 협력 고도화를 위해 정부 협력 및 파트너십 단계로의 격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**KIEP**